

만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11

2024
통권 608호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의 가을을 담은 작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여정 속에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도와 감사의 영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윤희철 작가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11월 목회력

- 01 금 · 연합권찰모임, 전도특별금요기도회
- 02 토 · 영락가족특별새벽기도회
- 03 주일 · 찬양예배 성찬, 신임교사교육 수료식
- 08 금 · 전도특별금요기도회
- 10 주일 · 한경직기념사업회 시상식, 제직회
- 11 월~16 토 ·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 15 금 · 심방준비회, 전도특별금요기도회
- 17 주일 ·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연합찬양예배, 새가족환영회, 총동원전도주일
- 24 주일 · 사회봉사주일, 교회창립 기념음악예배

만남

2024년 11월호

통권 608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 김운성

특집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③ 제자도

05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탁현수

08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고상섭

추수감사절 특별기고

10 '구원의 우물'에서 끌어 올린 감사 서문강

땅끝까지 이르러

12 창작 뮤지컬 '욥, 하늘 진주' 김경옥

14 은혜의 원더랜드, 안티폴로 선교 정재훈

17 유럽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김지연

20 북한선교부 비전트립 윤연상, 정성훈, 이나영

24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황재영

다음세대

26 주님의 빛나는 작은 별들 아동부

28 하나님께 더 가까이...사랑부 가을 소풍 사랑부

32 수능생들 주님의 담대함 가득하길 김진영

기독교 인문학

34 기독교 화가 김준근을 아시나요 김성아

36 음식으로 입한 하나님의 은총 김응기

영락의 울타리

38 나쁜 하나님? 나쁜 하나님! 김 휘

40 강보, 세마포 그리고 하나님의 옷 이종태

만남 그리고 사람들

43 포근한 나의 성령님 인 미

44 영락과 40년...“기도해 주세요” 소리선교회

46 신학생들 도우며 다음세대 세웁니다 영락실전회

교회소식

48 2024 선교대회 외

56 색채를 넘어 '빛'에 대한 갈구 정재원

57 영락시어터 11월 상영 영화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

김운성 위임목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8)

11월입니다. 이때가 되면 시원하게 느껴지던 바람이 몸을 떨게 하는 찬바람으로 바뀝니다. 두툼한 외투가 거리를 누비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받으며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단풍은 짧은 인생을 끝내고 낙엽이 되어 마지막 하강으로 평생을 마감합니다. 마음이 스산해지는 때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11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월에는 설날이 있고, 2월에는 봄방학이 있고, 3월에는 3.1절이 있고, 4월에는 식목일이 있고, 5월에는 신나는 어린이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 7월에는 제헌절이 있는 데다가 여름방학과 함께 여름성경학교가 있으니 가장 좋았습니다. 8월에는 여전히 방학이고, 9월에는 추석이 있고, 10월에는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있어서 좋았고, 12월은 겨울

방학이 시작되고 성탄절이 있으니 멋진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학생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했더니, 한 친구가 자신은 11월이 가장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농촌에서 자라서 농사를 알았습니다. 9월부터 시작한 추수가 11월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고단한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로 접어들어 모처럼 휴식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때이니, 일 년 중 가장 풍성했다고 합니다. 또 아무 부담 없이 성탄절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신났던 때가 11월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친구가 느끼는 11월의 기쁨을 모를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친구는 씨를 뿌려 가꾸는 수고를 알고, 저는 도시에 살아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11월의 기쁨을 압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 하나 배웠습니다. 무의미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시간을 보람 있는 멋진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를 심은 사람은 추수 때까지 설렘으로 살 것입니다. 또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매일매일 명절이 될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씨를 심은 사람에게는 11월이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는 달이 될 테니 좋은 달,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만 누리는 11월의 기쁨
봄부터 심고 가꾼 수고로 풍성한 수확*

*육신 아닌 성령 위해 심어야 영생 얻어
좋은 결 많이 심어 추수할 것 넘치길*

지혜로운 성도는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는 유난히 씨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네 가지 땅에) 사람의 비유, 가라지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종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 삶의 반영이기도 하고, 우리가 심는 자로 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 꽃 씨를 뿌리면 지나간 길에 많은 꽃이 핀다. 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

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갈라디아서 6장 7~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경직 목사님께서서는 다양한 영역에 섰던 씨앗을 많이 뿌리셨고, 지금도 곳곳에서 그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데도 매우 바쁩니다.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이 11월에 있는 것은 절묘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보면 11월에 추수하게 되니, 감사주일이 11월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달리 말하면 누군가 봄부터 심었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가능합니다. 심지 않았다면 11월이 되어도 추수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봄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미리 시작하는 감사절은 제가 모셨던 목사님에게 배운 바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리셨습니다. 어려운 목사님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여쭙었더니, 1월부터 열 달 동안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일찍 준비하는 사람, 일찍부터 심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이 되었습니다. **만남**



제자도(Discipleship)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천국만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제자는 천국행보다 더 중요한 길 쫓는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여정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道)’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제자도(道), 즉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여정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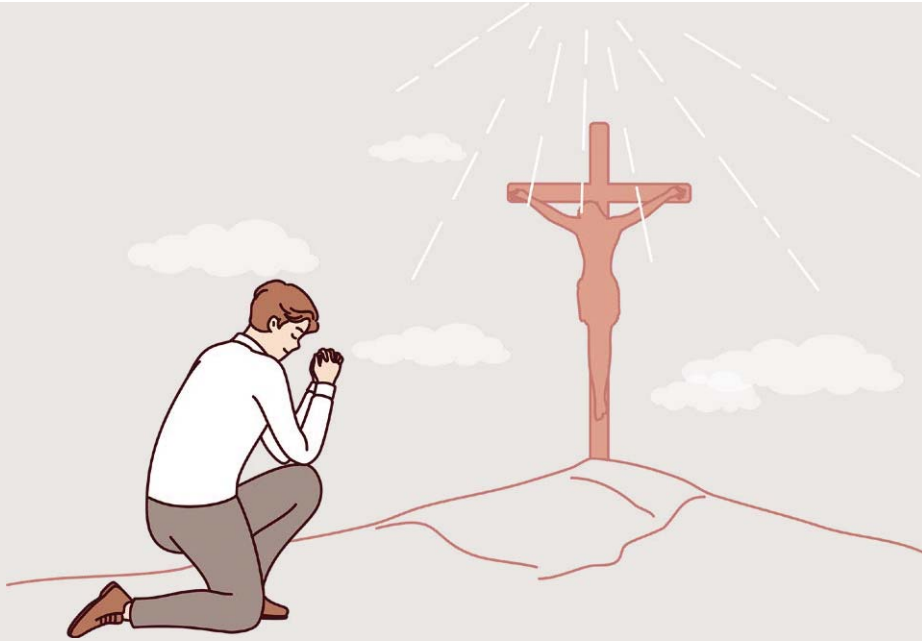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숭배의 큰 죄를 범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셨

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애굽기 32:32)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책을 자신이 짊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신앙 목표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상의 신앙을 가졌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제자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천국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주인 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탁현수 목사
고양·파주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신앙과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결국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희생·섬김... 자기십자가의 흔적 있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

자가 형틀에서 생을 마감할 뻔했던 이 강도는 극적으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강도에게 십사리 ‘제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강도일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의 삶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겨지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욕심과 욕망, 불의와 폭력의 흔적이 더 선명할 뿐, 인내와 용서, 희생과 섬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자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가복음 8:34)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제자가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꿈틀대는 이 기적 자아를 부정하는 자기 부인의 여정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내는 불편함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외로움과 고독함의 순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소유 아닌 내려놓음으로 완성되는 제자의 삶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 489장의 후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물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받은 고난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작은 억울함과 손해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나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 받은 복은 넘쳐나는데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십자가 고난의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의 삶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내려놓은 것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공을 향한 욕망을 포기하며,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인정 욕구도 내려놓아야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내려놓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세상을 살며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닌, 무엇을 내려놓았는가로 평가받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인생의 결정적 순간순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삶에는 용서하느라 흘린 눈물 자국이 깊이 패어 있고, 희생하느라 야윈 손과 발이 남아 있으며, 견디고 인내하느라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린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를 믿어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많은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만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뱀파이어 크리스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데만 관심

미국의 영성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제자도가 없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켜 “뱀파이어 크리스천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뱀파이어는 외국영화에 자주 나오는 흡혈귀로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은 가지지만 이 땅에서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천국만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제자도의 길 걷는 성도들의 공통점 세 가지

옥한흠 목사는 자신이 지은 책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요소 즉 ‘인격적 위탁자’ ‘종’ ‘증인’이 공통으로 드러난다고 하셨다.



고상섭 목사
그사랑교회



1. 인격적 위탁자

인격적 위탁이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긴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인 우상을 숭배하기도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히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을 선택한다.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신분을 물을 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요나 1:9)*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크리스천의 정체성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더 사랑

하는 대상은 히브리 민족이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머리에 뿔 달린 동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우상 숭배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자신을 실망하게 할 때 절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인격적 위탁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인 우상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disordered love)이라고 정의했다. 인격적 위탁은 사랑의 질서를 말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2. 섬기는 종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요소는 섬기는 종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시지 않으셨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섬기는 자로 왔다고 고백하셨다.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 무엇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도 이런 섬김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나눌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던 서사평 선교사님의 책상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글귀가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섬김이다. 섬김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며, 낮아짐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다.

3. 복음의 증인

인격적 위탁자와 섬기는 종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말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는 공동체였지만, 어느 곳에서도 “전도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안에서 내적인 충동으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사도행전 4:20)라는 삶을 살았다. 은혜는 순종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전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위탁’과 ‘섬기는 종의 삶’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복음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뱀파이어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의 피만 이용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열매와 섬기는 종의 삶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일 것이다. **만남**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감사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는 우물에 대한 추억이 있다. 지금은 어느 시골 마을에도 수도 시설이 잘되어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60여 년 전 60세대 정도로 구성된 필자가 살았던 마을의 우물은 정말 생명의 젖줄과 같았다. 그래서 우물은 물 길으러 온 동네 아낙네들의 ‘필연적 교제’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동네 각 가정의 일상은 거기를 통하여 알려졌다. 물론 거기를 통하여 없는 일도 있는 것같이 포장되고, 사실보다 더 크게 부풀려지고 과장되는 좋지 않은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은 우리 마을의 절대적인 생활 수단 중 하나였다.

3등급 건수 우물, 1등급 생수 우물

필자의 기억으로는 마을에 두서너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우물의 성질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등급을 매겼다. 비가 오면 물 색깔이 부엌에 탁해지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런 우물은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우물의 수위가 내려간다. 그리고 심하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기도 했다. 그런 우물은 3등

급 우물이었다. 1등급 우물은 정말 희한하게도 비가 많이 오거나 가물어도 물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항상 깨끗하며, 수위도 여전했다. 이유를 부모님께 여쭙었더니 “하나는 건수(乾水) 우물이고, 다른 것은 생수(生水) 우물이다. 건수 우물은 장마에 빗물이 그 우물에 들어가서 부엌에 된다. 그러나 생수 우물은 깊은 데서 올라오고 건수가 침입하지 못하게 잘 건조되었다. 그런 우물은 장마 통이나 가뭄의 때에도 물의 양이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항상 그 대중이지”라고 설명하셨다. 부모님의 대답이 필자의 어린 마음에 진한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필자가 자라고 살아오면서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빛도 함께 온다.

추수감사절에 생각해보는 감사의 깊이

추수감사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르며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와 삶에 필요한 것들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



서문 강 목사
중심교회 원로

중심교회에서 33년간 목회를 하며 칼빈대학교에서 가르쳤다. 현재는 중심교회 원로목사 겸 말씀선교사(Youtube 말씀 사역)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그 궁극적 승리의 보장』(이상 청교도신앙사) 등이 있고, 역서로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로마서 강해』(전 14권)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 청교도적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수십 권이 있다.

다운 이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어떤 깊이에서 이루어야 하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감사가 ‘건수 우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생수 우물’ 같은 것인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의 순도나 분량’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분명 ‘건수 우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 눈에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면 감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물론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이 터지면 우리 입에서 금방 ‘주여, 감사무지로소이다’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마치 그것은 장마 통에 ‘건수 우물’의 넘침과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로 보이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해 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좋은 것이 전에 없던 고통의 소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우리 입에서 감사의 소리 대신 불평과 탄식의 소리가 나온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자주 보여준다. 특히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

구원의 은혜 받은 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나 성경에 “궁창의 별같이 빛나 많은 이들을 옴은 데로 인도하던 믿음의 선진들”(다니엘 12:3)은 분명 그 마음에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남들이 모르는 그들의 비밀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일만 가지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생수의 근원’은 대체 무엇인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그 간단한 답의 깊이와 높음과 넓이와 길이를 다 헤아릴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모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

직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현실이 우리의 복됨과 위로와 영광의 영원한 샘이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음은 더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받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주실 것은 없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고린도전서 2:9)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감격이 항상 솟아오르게 하시려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다고 하면 과연일까? 필자의 생각에 성경에서 이 사례를 찾아 제시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의 하나라 여겨진다. 성경에 나오는 참믿음의 사람들 모두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하박국, 사도들... 참된 구원신앙을 가진 자 중에 여기서 제외될 자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당위성의 근원은 ‘구원의 은혜’다. 욥이 이긴 비결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소망’에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 오리라”(욥기 23:10)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감사는 곧 마르게 되는 건수 우물과 같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3~14)

이번 추수감사절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어 마시자(이사야 12:1~6).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의 이유로 변하게 하실 주님 찬미하게 되리니. 아멘. **만남**



아침햇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창작 뮤지컬 '옴, 하늘 진주'

고통과 좌절로 생긴 원망과 체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일이다. 옴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이요, 위로라 할 수 있다. 옴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고난에 담긴 신비 속에서 영광을 입게 된다. 2024 선교대회의 서막을 연 문화선교팀의 창작뮤지컬 '옴, 하늘 진주'(10/11~12, 베다니홀 공연)는 이러한 옴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제공 문화선교



아들과 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옴과 그의 아내. 옴의 고난 앞에 철저히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옴은 절규하는데...



옴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엘리바스, 빌닷, 소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옴을 찾아오시고 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길고 어둡던 고난의 시간을 지나 아침햇살 같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희망의 노래로 담아낸 뮤지컬 '옴, 하늘 진주'.



은혜의 원더랜드, 안티폴로 선교

Philippines Antipolo

제2남선교회 필리핀 안티폴로 선교사역 다녀와

"네 지경을 넓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제2남선교회(지도 김진우 목사)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필리핀 안티폴로를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3명의 선교단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몸소 체험한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정재훈 안수집사
용인·화성교구
제2남선교회 부회장

은혜 1. 현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다

안티폴로시(市)가 있는 필리핀 마아가이구(區)는 마닐라 북동쪽 약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로부터 약 40분 더 북동쪽에 있는 산속 마을 산호셉은 더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김종훈·김종애 선교사 부부는 영락교회



선교부 출신 김우람 선교사의 부모님이십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시다 하루아침에 추방당한 이들은 6년 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필리핀 마아가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선교사 부부는 부모가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간 동안, 공부느커녕 더 어린 동생들과 함께 먹을 것조차 없이 방치된 수많은 어린이를 돌보며, 그들에게 교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3년 전에는 아들 김우람 선교사가 합류하여 더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약 1년 전부터는 산호셉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마아가이와 산호셉에서 300여 명의 어린이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 중 30여 명을 워십팀과 리더로 세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팀에 선발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는 아이들은 예배,



제2남선교회는 지난 추석연휴기간(9/13~18) 필리핀 안티폴로를 방문, 현지 교회 성도와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펼치고 왔다.



기도, 찬양 연습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두 분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안티폴로에 주신 큰 은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2. 교회 건축 헌금의 기적

사전 답사를 다녀온 제2남선교회 회장 박일수 안수집사와 두 명의 임원은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답사팀은 중단된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모금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의 답사팀에는 회계 담당 집사님이 함

게하지 않아서 현실을 모르는 낙관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강한 확신에 따라 기도하며 모금을 진행한 결과, 초과한 600만 원의 공사비를 포함해 총 3,600만 원이 모금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임을 깨달으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3. 예비된 손길과 하나님의 시간표

선교단은 처음에는 17명으로 시작했으나, 출발 한 달 반 전부터 뜻하지 않게도 제2남선교회 회원이 아닌 일반성도 16명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 사역, 이미용 사역, 무용과 찬양, 전도 사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었고, 그들의 참여로 선교사역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50여 상자의 역대급 후원 물품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 당일에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 체증으로 인해 필리핀행 비행기 탑승구가 닫히기 1분 전 극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굉음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사역 중 실내에 있을 때만 내리고 실외 사역을 할 때는 날씨가 말끔히 개어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였습니다.

은혜 4.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제2남선교회의 선교단 33명이 필리핀 아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데는 단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야가와 산호셉 두 마을과 교회의 향후 10년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잘 양육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현지 교회가 마을 주민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반 대학뿐 아니라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아 다시 본국으로 파송하여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갈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비전을 그려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돌아와서 알아본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학 혜택, 재학 중 유급 일자리, 졸업 후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2년제 대학을 소개받았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신 김종애 선교사님이 한글 교육을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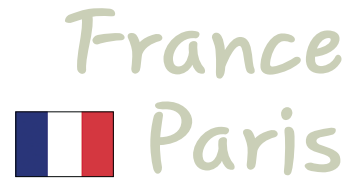
기도와 사랑의 나눔

선교 중에 한 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나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100% 보장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맑고 선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 아이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선교의 경험에서 늘 느끼는 것은 내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봉사는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에 있을 제2남선교회 해외선교에 함께 참여하여 이 사랑을 나누고,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직접 체험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



유럽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제3남 인터넷 해외선교봉사단 파리 가다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싶으신가요?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 하는 가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혹은 눈물로 멈춰야 했던 인생의 길 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김지연 집사
안양·수원교구
제4여전도회

1940년대, 미국의 한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살던 곳을 방문했을 때 의 일입니다. 목사님이 살던 방에는 카펫이 있었는데, 한 부분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과 미국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떠나려던 순간, 한 명의 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돌아가 보니 그 학생은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던 그 카펫 위의 닳아진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Do it again!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저를 통하여 역사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그 청년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 제3남선교회는 지난 9/16~20까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유럽 거주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인터넷(스마트) 선교봉사활동을 펼쳤다.
← 최초로 장과 절을 붙인 성경(제네바성경)을 인쇄했던 인쇄소가 있던 자리

유럽9개국 한인 개척교회 목회자·선교사 지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락교회 제3남 인터넷 해외선교 봉사단이 프랑스 파리로 떠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는 유럽 9개국에 있는 한인 개척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로 가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왜 하필 프랑스 파리로 가느냐?”였습니다. 아마도 유럽은 선진국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위그노처럼』(성원용 지음, 국민북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배를 묵숨 걸고 지켰던 위그노의 신앙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 위그노의 신앙이 희미해져 영적으로 척박해진 그 땅을 여전히 지키며,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뜨겁게 섬기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5회째...칼뱅 생가 둘러보며 일정 시작

봉사단의 첫 일정은 『위그노처럼』 책의 저자이신 파리선한목자교회 성완용 목사님과 함께 칼뱅 생가를 둘러보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칼뱅 생가를 제외하고는 비석이나 팻말 하나조차 없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메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가게 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시옵소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이곳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전트립을 마친 후, 파리선한목자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섬겨온 인터넷 해외선교봉사는 올해로 25차를 맞이했습니다. 인터넷 해외선교봉사는 수십 년간 국외에 거주하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IT 교육과 노트북 같은 장비 지원, 의료 봉

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MK 교육 등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측면에서 돌보고 지원하는 봉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선교사님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년부터 봉사단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25년 동안 매년 이 자리를 지켜온 한 가정 한 가정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신앙의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선교사님들도 온전히 느끼셨는지, 후기를 들려주실 때 교육 내용도 너무 유익했지만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에서 가장 크게 감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 자녀들과 김밥노래 부르며 큰 은혜

저는 MK팀에서 사역했는데, 새로운 나라에 오게 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와 마주하게 된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팀의 주제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God is always with us)'였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배우고 암송하며 다양한 활동과 게임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김밥의 탄생』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준 시간이었는데, 그때의 기쁨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음식이 될까? 꿈을 꾸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 냉장고에 까만 김이 찾아왔어. 이 김은 귀도 팔도 없고, 다리도 없었지. 그래서 친구들은 김을 마구 놀려댔어. "김쓰김쓰, 김킴킴, 김밥 되어버렸어!"라고 노래하며 친구들은 김을 놀리고 따돌렸지만, 친구들을 용서한 김은 위기에서 구해냈지. 김은 친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들은 마침내 김밥이 되었지.



인터넷(스마트) 선교봉사 중 IT교육에 참여한 현지 이상화 선교사의 작품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신나게 이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며 김밥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마치 요셉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셨듯이, 이 아이들의 꿈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각자 소개하던 중, 한국 이름에 김 씨가 많다는 걸 알게 된 일곱살 영광이가 "여긴 왜 이렇게 김이 많아요?"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모두가 김이야"하며 축복했던 시간도 너무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봄날의 아침처럼 다가오는 선물

곧 추운 겨울이 오겠지만 3월이 되면 다시 봄이 오고, 나무들은 연둣빛 새순을 낼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다시 돌아올 봄을 꿈꾸며, 김주련 작가의 그림책 『다시』를 읽습니다. 이 책은 예레미야 31장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는 마치 봄날의 아침처럼 다가오는 선물 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다시 찾아올 봄처럼, 우리의 아픔도 치유되고 어제의 잘못이 지워지며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유럽 땅에도, 한국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길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노래하고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안남**



몽골에 빛진 마음

분단 이후 남북이 행정구역의 동일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땅은 강원도입니다. 그만큼 민족의 애환과 설움이 서린,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묻어있는 땅입니다. 탈북 초기 주요 경로 중 하나였던 몽골에도 그런 아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몽골로 이어지는 탈북 경로는 극심한 온도 차가 있는 고비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를 오가는 이 지역은 탈북자들에게 큰 고난의 길이었죠. 많은 탈북자가 거

기서부터는 브로커의 안내도 없이 나침반이나 별자리에 의지해 자신의 힘으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한 번에 가로지르면 1,000km가 채 안 되지만, 그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비상식량이 떨어져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일부러 국경수비대에 발각되려 했다고 합니다.

고비사막 넘어 자유의 땅 밝은 이들의 증언

처음 국경수비대는 드넓은 사막을 건너온 이들을 경계했지만, 탈북민들이 체포되자마자 기진맥진해 쓰러지거나 숨지는 일이 잦아지자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에 걸린 이들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수비대는 소량의 식량과 물을 준비해 경계를 섰고, 탈북자를 만나면 음식을 먼저 제공하며 참사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아 자유의 땅을



윤연상 목사
북한선교부
화천 제2하나원

밟은 이들은 몽골에 빚진 마음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경계를 넘고자 하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세운 국경수비대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락교회 북한 선교부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비전트립 국가로 몽골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탈북 경로가 남아있는 몽골 땅을 밟으며 희미해진 기억을 다시 분명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참혹하게도 자유의 땅을 밟지 못하

고 그곳에 묻힌 이들의 마음을 거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에 빚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몽골에 빚진 마음을 가진 자유인들이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된 비전트립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14~15)

남북청년들 복음으로 이미 통일

지난 8월, 북한선교부 임원, 교역자, 그리고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다녀온 몽골 비전트립.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그보다 더 소중한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비전트립 계획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북한선교와 몽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제 생각이 짧았음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먼저, 몽골은 주요 탈북 루트로 이곳을 통해 대한민국 땅을 밟은 자유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시가 강화되어 탈북

자의 수가 급감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는 비밀리에 접선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몽골은 대표적인 친한(親韓)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북한과 정치·역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도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몽골의 지도자 중에는 소위 '북한통'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정통한 이들이 많습니다. 몽골에는 북한을 위한 내지(內地)선교를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몽골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의 담장을 넘을 수 있는 복음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북한선교 사역자로서, 몽골이 북한을 향한 복음의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을 깨닫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정성훈 전도사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부

몽골 통해 거대수용소 북에 복음 전파 가능성 확인

몽골보다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함께한 남북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남한 청년 다섯 명과 자유인 청년 다섯 명은 서로 나고 자란 환경이 판이해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이도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대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즐거움과 아픔까지 함께하며,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저녁으로 함께한 경건회와 기도회에서 더는 '남과 북'이 아닌,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기도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둥글게 손을 맞잡았을 때, 우리 안에서 이미 작은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몽골에서의 귀한 교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예배, 하베로기도회(남북청년연합기도회), 뉴코리아국제학교(자유인대안학교)에서 봉사하며 함께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몽골에서, 그리고 우리 남북 청년들을 통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큰일을 이루실'(하박국 2:3)하나님을 만날 날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 매순간 느껴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몽골 비전트립을 다녀온 자유인 예배부 청년성도 이나영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 비전트립, 영락의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며 모든 일정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방황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작년 7월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

을 좇으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언젠가 해외 봉사를 다녀오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비전트립 광고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사실 처음 비전트립을 신청할 때 저는 신앙 초보자였고, 이 비전트립의 특별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해외 봉사를 경험할 좋은 기회로만 생각했습니다.

한·몽의 과거와 현재 보며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

몽골에 도착해서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과 맑고 청량한 하늘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또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며 몽골 제국을 세웠던 전설의 칭기즈칸 동상과 그가 이룬 몽골 제국의 유산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유라시아를 정복하며 강대한 몽골 제국을 세웠던 칭기즈칸의 업적에 비해, 현재 유목 생활



이나영 성도
자유인예배부



북한선교부는 지난 8/20~24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거러더크에서 비전트립을 진행했다. 사진은 믿음의궁전교회 성도들과의 합동예배

을 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칭기즈칸의 후예들과, 초라하게 남아있는 몽골의 역사 유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천년의 역사 동안 언제나 강대국의 지배와 간섭을 받으며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몽골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바라보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골의 역사를 체험한 후, 울란바토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국과 몽골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하나 된 마음으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

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나라의 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 통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쾌락과 유혹을 따르며 욕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망(亡)하고 쇠(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4박 5일간의 여정은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흥(興)하고 성(盛)하는 축복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매 순간 느끼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의 모든 일정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모든 과정을 통해 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직장인에배 가을음악회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은 10월, 도심 속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10월 24일과 31일 양일간 열린 '직장인에배 가을음악회'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가을음악회는 영락교회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황재영 목사
인천교구
전도부(주중사역)

24일에는 바리톤 유정현의 진행으로 드림라이프 클래식팀(가운데 사진)이 클래식 힐링 콘서트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을 펼쳤다.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는 소프라노 윤정빈, 바리톤 유정현·김승환, 피아노 김한길, 크로매틱 하모니카 이병란이 성가와 가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했다. '성령이 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은혜'를 비롯해 친숙한 곡들이 연주될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와 박수로 호응했고, 마지막 곡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드림라이프 클래식팀과 청중들이 합창하며 가을날 오후의 여유를 만끽했다. 31일에는 대중음악 가수 자두와 재즈 피아니스트 오화평으로 이루어진 듀오 '마음전파상'(맨 오른쪽 사진)이 감각적인 선율의 음악을 선물했다.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해', '김밥' 등의 히트곡으로 친숙한 가수 자두는 피아니스트 오화평과 멋진 협연을 들려주었다. 참석자들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 현장에 온 듯이 어깨를 들썩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음악회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12시부터 12시 40분까지)을 활용하여 따뜻한 커피와 빵을 제공함으로써 간단히



대중음악 가수 자두와 재즈 피아니스트 오화평으로 이루어진 듀오 '마음전파상'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참석한 직장인들에게는 더없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제공했다. 참석한 직장인들은 빌딩 숲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과 재즈곡을 즐기며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영락교회 뜰 안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르익어가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다.

음악을 통해 일터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게 해줘

작년 가을음악회를 기점으로 10월이 되면 영락교회 가을음악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벌써부터 내년 가을음악회를 기대하고 묻는 직장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직장인예배 가을음악회를 통해 교회 주변 많은 직장인들이 영락교회 뜰 안을 편안하게 드니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직장인예배 가을음악회는 단순한 음악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교회 주변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교회 문턱을



넘어 올 수 있도록 도우며,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일터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게 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역사회에는 건강한 문화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회 주변 직장인들에게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은 곧 영락교회 가을음악회'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주변 직장인들 사이에 풍성한 만남이 이어질 것이다. 직장인예배 가을음악회가 직장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물하고 일터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모두가 기다리고 미소 짓게 만드는 음악회로 자리매김하기를 함께 꿈꾸어본다. **만남**



주님의 빛나는 작은 별들...
아동부 연합찬양제 '리틀스타'





교회학교 아동부(유년·초등·소년부) 연합찬양제 '리틀스타'가 지난 10월 20일(주일) 오후 5시 베다니홀에서 소년부(부장 조용철 장로)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리틀스타' 찬양제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찬양대와 앙상블이 연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소중한 찬양 축제의 자리입니다. 더불어 장년 성도들에게는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왔습니다.

200여 명의 아동부 어린이 찬양대원이 참여한 이 날 찬양제에서 영락의 리틀스타들은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다양

한 레퍼토리의 찬양곡을 청중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아동부의 막내인 유년부 찬양대는 '마음이 콩닥콩닥(김새롬)' 등의 찬양을 통해 청중들에게 기쁨을 던져 주었고, 초등부 찬양대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주영광)' 등의 성가곡을 통해 찬양의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어 앙상블과 함께한 소년부 찬양대가 '주님 한분 만으로(이현철)' 등 성가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아동부 찬양대원 전원이 연합찬양곡 '꽃들도'를 연주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어린이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천상의 화음을 선사했습니다. **만남**

제공 아동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랑부 가을 소풍

가을 하늘 아래 영락기도원서 야외예배

강렬했던 여름이 지나고, 마침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을은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는 잠깐의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짧고 아름다운 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사랑부는 펜과 종이를 들고 영락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주일, 사랑부는 학생, 교사, 학부모 약 120명이 영락기도원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벗 삼아 '자연과 사랑부'라는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른 아침 사랑부실에 모인 후 영락기도원으로 향하는 여정은 사랑부 학생들에게 다소 힘들 수 있었겠지만,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드린 야외 예배는 오랜만이라 더욱 기쁘고 힘찬 모습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점심을 나누고, 직접 만든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을 즐기며 기쁨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사랑부가 제일 좋아하는 보물찾기 시간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보물을 찾아 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웃음과 환호가 가득한 가운데, 사생대회와 백일장이 시작되자 모두 진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일장 및 사생대회 수상작

백일장

마름	바름	이름	최나래
자	편의 아름다운.		
연	한편만.		
과	말과 음식		
사	강스런 세상의 모든 것들		
랑	강한 새소리		
부	의로운 소리가 모든 것은 허4님의 품에.		

1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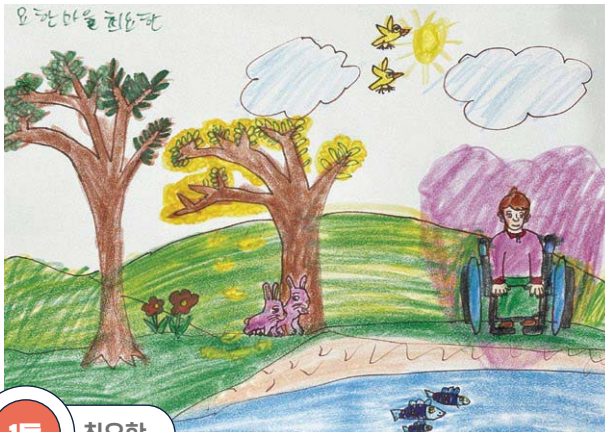
최나래

마름	오름	이름	김용진
자	! 함께 여백해오		
연	극도 위십도 모든		
과	정 속에		
사	랑이 넘 치는		
랑	낭만의		
부	부서. 사랑부!		

2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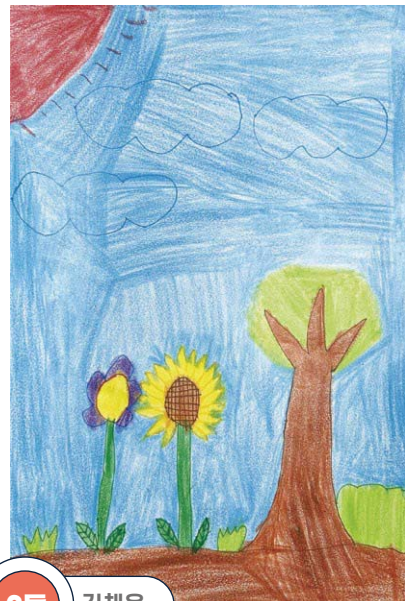
김용진

사생대회



1등

최요한



2등

김채운

만남이 뿜은 아차상

마름	바울	이름	이바회
자	유 다		
연	차 다		
과	밀 빵		
사	탕 가지고 (바울)		
랑	함께		
부	반으로 돌려가라		

이바회

마름	다니엘	이름	강흥비
자	전 거		
연	필은 사람이 만들고		
과	일		
사	과		
랑			
부	로 콜리는 하느님 만드셨어요! 맛있어요^^		

강흥비

어릴 적 가을이 되면 학교에서 열리던 사생대회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짓기하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 우리 모두 그랬던 것처럼, 사랑부 학생들 역시 각자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펼치며 그림과 6행시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림과 글짓기가 마무리될 즈음, 사랑부는 찬양을 틀어놓고 자연 속에서 함께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부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가을의 고요 아래 하나님 따뜻한 손길 느껴

어떤 사람들은 가을을 고독의 계절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독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부는 이 가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계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계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사랑이 넘치는
 강만의
 부서! 사랑부!



제공 사랑부

수능생들 주님의 담대함 가득하길



어느새 찾아온 인생의 첫 관문 수능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자 선물로 온 아이가, 이제는 아이의 인생 중 가장 큰 도전과 맞닥뜨린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그저 건강한 것만으로도,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만으로도 감사하고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로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아이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보성여고 찬양팀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털어놓았을 때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아이의 결정을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앞날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아이의 진로를 응원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감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진영 집사
성동·광진교구
갈보리찬양대



‘기도의 역청’을 바르는 심정으로 간구

고3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자 초조한 마음이 생겨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학부모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험생 부모님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일찍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늦게나마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먼저 자녀를 키워낸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던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화 중, 품 안의 자녀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of 역청으로 바구니를 단단히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대와 학생회에서 봉사하며 주일을 지켜온 아이를 볼 때마다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큰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잘 마쳐왔지만, 이제 입시라는 큰 문턱 앞에서 혹여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아이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이 아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지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이가 마주하는 모든 인연과 만남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에도 모든 만남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아이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편견과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그리고 그 뒤에서 부모가 늘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천로역정 삽화 그린 화가 기독교인 김준근을 아시나요

개화기 활동한 무명의 크리스천 풍속화가

미술은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은 종종 시대와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대와 문화의 주인공인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아낸 ‘풍속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림은 주로 양반들의 소유물이었고, 그 내용도 종교적이거나 기록적인 그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정조의 문예부흥 정책과 중인 계층의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을 담은 풍속화가 등장하게 되었고, 대중에게도 널리 향유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독립된 미술 사조로 평가될 정도로 우리 전통 회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아 집사
성남·분당교구
정신여중 미술교사

‘풍속화’ 하면 여러분은 어떤 화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단원 김홍도(1745~1806)와 혜원 신윤복(1758~?)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들은 궁재 김득신(1754~1822)과 함께 조선의 3대 풍속화가로 평가받

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기록화를 그리던 도화서의 화원이었으며, 어진(임금의 초상화) 제작에도 참여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중인계층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조선 중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독특한 화풍을 발전시켰던 이들의 작품은 미술사 연구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원·혜원과 다른 ‘수출화’...서양에 많이 소개돼

오늘은 이렇게 널리 알려진 풍속화가가 아닌, 새로운 화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산 김준근입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개화기 시기에 활동한 화가 김준근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항 후 조선의 생활을 그린 그림은 서양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유럽과 북미로 주문 제작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그의 작품 1,600여 점이 17개국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은 목판에 찍어낸 후 세밀하게 채색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이것을 ‘수출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적 삶의 모습 일기처럼 무심히 표현

2008년 청계천 문화관에서는 개관 3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기산 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이 열렸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으로 만난 기산 김준근의 작



출처: 기산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 턴로력당 상,하(초판본, 1895) 국립한글박물관

품들이었는데, 그의 그림에서 단원의 유려한 붓 선이나 혜원의 세련된 화면과는 다르게 일기를 쓰듯 가감 없이 그려낸 듯한 친근함과, 조선시대의 다양한 생활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전시였습니다. 특히 국수를 뽑는 장면, 이발하는 장면, 그리고 갖가지 형벌이 행해지는 장면 등의 그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한국과 독일에서 몇 차례 전시가 이어지면서 이름이 알려진 기산 김준근의 작품들은 최초의 K문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기산 김준근에 대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점은 그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문학 번역서인 『턴로력당(천로역정)』의 삽화를 그린 화가라는 사실입니다. 『턴로력당(天路歷程, Pilgrim Progress)』은 17세기 영국 침례교 목사 존 버니언(John Bunyan)이 쓴 대표적인 기독교 고전입니다. 1895년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S 게일이 번역한 조선어판 『턴로력당』에는 김준근의 삽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이 책의 삽화가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재해석해 그려낸 화풍이라는 점에서 김준근의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가들과 비교했을 때 기산 김준근의 예술적 가치가 어떨지 확실치 않지만, 그의 그림이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산 김준근의 작품을 여러분도 꼭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만남**

조선시대 대가들과 비교했을 때 기산 김준근의 예술적 가치가 어떨지 확실치 않지만, 그의 그림이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산 김준근의 작품을 여러분도 꼭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만남**

참고자료

『조선후기회화의사실정신』 이태호, 1999, 학고재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 간송미술관 소장유물
(조선의 프로페셔널 화인 조선풍속화, 세계를 거닐다) 김준근,
2010, ebs 『턴로력당』 조선어판 번역서 제임스 S 게일, 1895,
화봉책박물관 소장

11월 기독교 인문학 강좌 안내

주제: 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

11월 10일(주일) 오후 1시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필자(김성아 집사)가 한국 전통회화 강좌를 진행합니다.

음식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총

『바베트의 만찬』을 읽고

B a b e t t e ' s F e a s t



『바베트의 만찬』

이자크 디네센 소설, 노에미 비야무사 그림
추미옥 옮김, 2012,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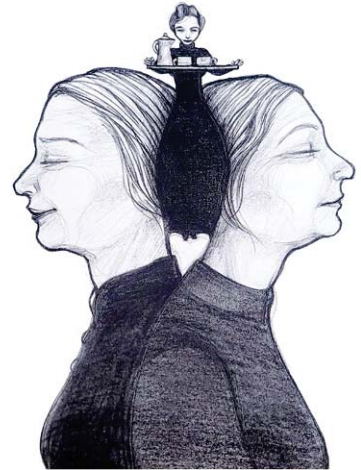
김응기 집사
노원교구
홍보출판부 교역위원

덴마크 작가 이자크 디네센의 대표작 『바베트의 만찬』은 옮긴이의 말대로 이야기가 소담하고 아름답다. 담담한 필치에 내용도 그리 길지 않은 데다 간간이 보이는 삽화도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두 번씩이나 오를 만큼 필력을 인정받은 작가의 유려한 글솜씨도 한몫해서 부담 없이 술술 읽힌다. 그래서 마치 어른이 읽는 동화 같다. 게다가 책을 덮고 나면 잔잔한 감동이 밀려온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1987년 덴마크에서 영화로도 제작되어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다.

소설은 노르웨이 피오르 지역에 나이 많은 두 자매가 살고 있는 베를레 보그라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나이 많은 자매의 이름은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의 아버지는 루터파 교회 목사다. 루터파 교회는 당시 세속의 쾌락을 거부하며 청교도적인 생활을 주창한, 노르웨이 전역에서 인정받던 교파다. 그런데 목사가 세상을 뜨자 해가 갈수록 신도의 수는 줄어들고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골이 생긴다. 하지만 두 자매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은 계속된다.

한편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는 젊은 시절, 미모가 남다른 까닭에 청혼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반대하는 목사 때문에 두 자매의 로맨스는 모두 미완의 사랑으로 끝나고, 결국 두 자매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금욕적인 청교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늙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베트라 불리는 프랑스 출신 한 여인이 두 자매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 가정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자매는 가정부를 들일 만한 돈이 없어 거부하지만,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극구 간청하는 바람에 함께 살게 되는데...

…은총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을 원합니다. 은총은 조건을 달거나 어느 누구를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은총은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며 죄를 용서합니다.(본문 66쪽)



『바베트의 만찬』은 작가의 기독교적인 성향과 예술관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어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야기 곳곳에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도 그렇거니와, 마을 사람을 위해 마련한 만찬은 마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한다. 비록 ‘최후의 만찬’과 성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의 숫자가 열두 명인 것이나, 식탁을 차리기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바베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바베트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베트가 요리한 천상의 음식을 통해 헤세드를 맛본다.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한 만찬은 반목하던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됨으로써, 목사가 돌아가신 후 연합하지 못하고 반목하던 마을 사람들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한다. 두 자매가 의도했던 것처럼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 아래 하나가 되는 은혜를 맛본다. 그리고 만찬장에서 대화를

주도한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바베트의 만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소설을 읽는 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내내 가시지 않는다. 이야기의 열개를 짜기 위한 소설적 장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서까지 두 딸의 결혼을 반대한다. 이유는 두 딸을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족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궁하기는 쉽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던가? 과문(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목사가 두 딸의 결혼을 반대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석연치 않다. 목사는 혹시 결혼을 ‘이 세상이 주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 싫어 했던 것일까? 그럼에도 소설은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에 온기를 지퍼 주며 훈훈하게 끝을 맺는다. **만남**



영락시어터에서는 11월 17일(추수감사주일) 『바베트의 만찬』 영화 상영합니다. -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나쁜 하나님? 나쁜 하나님!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중학교 교사를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신 어머니 밑에서, 매일 새벽기도를 드려야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예배, 금식기도, 학교 앞 전도, 말씀 암송 등 우리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과 훈련 속에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가정에 복이 넘치고 형통하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 신뢰와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나쁜 하나님

초등학생 시절 어느 여름, 아버지의 간경화(말기)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믿음 안에서 화목하며 늘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 불어닥친 불행은 모든 것을 흔들었고, 어린 마음과 신앙에 어둠을 드리웠다. 아버지와 이별을 준비하며 함께 떠난 가족 여행은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거짓말이며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배신하는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

아버지의 시한부 판정은 어머니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었다. 그러나 가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명령을 어머니에게 주셨고, 어머니는 병든 남편과 어린 두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종을 위한 배움의 여정과 훈련에 집중하셨다. 겉으로 보면 어머니는 하나님께 순종한 의인

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원망이요 배신자였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남편과 자식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어머니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주변의 말과 시선이었다. 교회 사람들은 “네가 더 착하게 살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아버지가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내게 압박을 주었다. 나의 삶과 신앙은 갈기갈기 찢겨갔고, 하나님은 아버지도 모자라 내게 어머니마저 빼앗아 가는 ‘나쁜 하나님’인 것 같았다.

그렇게 ‘나쁜 하나님’의 형상과 원망은 날로 커졌고, 끝내 하나님께 복수를 결단하게 되었다. 죄와 손을 잡고 두 얼굴의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매섭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는 죄의 유혹에 빠졌다. 당시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죄로 물들이고 사람들을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멀어져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톡톡히 경험하게 하셨다. 공허감, 비교 속 좌절,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도전에서 일어나는 실패,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겪게 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즐겨하시는 ‘나쁜 하나님’이셨다.

나쁜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곳은 더 이상 없었다. 결



국,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라는 탄식과 포기가 흘러나왔다. 길바닥에 누워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모님을 그랬듯이, 나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여달라며 소리쳤다. “제가 당신께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그때부터였다. 병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빈자리로 인해 혼란과 외로움을 느끼던 나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 아버지의 치료비와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채워주셨다. 교회, 기독교 학교, 사회 기관, 병원 등 다양한 많은 곳에서 사랑의 손길로 도움을 주셨다. 무엇보다, 세상과 사람들이 포기했던 아버지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셨다. 기적처럼 간이식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수술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그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의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나쁜 하나님’이셨다.

어머니는 신학 공부와 사역을 우선으로 지키며 틈틈이 병든 아버지를 돌보셨다. 비록 나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

을 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순종한 딸의 믿음에 화답하시듯 나와 어린 동생의 삶을 책임지셨다. 많은 어른이 부모처럼 우리를 보살피 주었고, 방황하는 청소년과 청년기에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언제나 사랑을 제공해 주셨다.

무엇보다 ‘나쁜 사람’이 되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겠다고 결심했던 나를, 하나님은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모델을 어머니로 삼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어머니를 빼앗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셨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했을 때, 성령의 능력과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공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모델’을 보내주신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해 하나님은 내 곁에 좋은 본보기를 보내주신 ‘나쁜 하나님’이시다.

지나온 시간과 가족의 여정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뵈고 예수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나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세워지고 있다. **만남**

김 휘 전도사
성남·분당교구
새가족부, 영락수련원



강보, 세마포 그리고 하나님의 옷

강보에 싸인 탄생... 세마포에 싸인 주검 예수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요한복음 19:40)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또 다른 성경구절인 누가 복음 2장 7절이 떠올랐다.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두 구절에 공통으로 담겨있는 말 “싸여있다”가 그것이다. 세마포에 싸여있는 예수님, 강보에 싸여있는 아기 예수님.

‘싸여있다’는 누군가가 싸주었다는 의미이다.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싸주었다는 것. 그렇다. 예수님이 스스로 강보를 걸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강보로 싸주었다. 그때 예수님은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였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이 스스로 세마포 수의를 입으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예수의 시체를!-세마포로 싸주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람인 척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사셨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복음 사건을 이 구절들만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저런 옷을 제 손으로 갖춰 입으며 살아가지만, 인간은 누구랄 것 없이 모두 벌거벗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 그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줄 옷을 자기 스스로 입지 못한다. 또한, 인간은 누구랄 것 없이 모두 죽어 벌거벗겨지며, 죽은 그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줄 옷을 자기 스스로 입지 못한다. 그는 ‘싸인다’. 강보에 싸이고 세마포에 싸인다. 강보에 싸여 있고 세마포에 싸여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에케 호모(Ecce Homo! 보라, 인간이다!)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생이다.

인간의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근원적 벌거벗음

사람은 근사한 옷을 걸치고 살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담은, 즉 사람은 근원적으로 벌거벗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이종태 목사
서울여대 교목실장

때문이다. 그래서 ‘가리고’ 싶어 한다. 근사한 옷들로, 화려한 옷들로.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다. 사람의 근원적 별거벗음은 사람이 제 손으로 걸쳐 입는 그 어떤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 근사한 신사복을 입고 무개를 잡아보기도 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귀부인 대접을 받아보기도 하고, 화사한 나들이복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멋진 제복을 입고 품을 잡아 보기도 하고, 성직자 가운을 걸치고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해보기도 하지만, 아담의 그 근원적 별거벗음은 그대로다. 사람이 제 손으로 갖춰 입는 모든 옷은 아담이 나뭇잎을 꺾어 만든 옷, 자신을 은폐하려는 옷, 죄를 은폐하려는 옷, 치부 가

리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언덕 위 나무 위에 별거벗은 몸으로 매달리셨다. 사람이 제 손으로 차려입는 모든 옷을 다 물리치고서, 그 옷들의 값싼 위로, 그 옷들의 거짓 영광을 다 거절하고서, 그렇게 죽음을 맞았다. 그렇게 죽음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싸워 이기셨다.

십자가 예수님을 감싸준 건 온통 성부의 사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요한복음 10:17) 그렇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The Adoration of the Shepherds 1646), 렘브란트



그리스도의 매장(The Entombment of Christ 1636-1639), 렘브란트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언덕 위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은 알몸이 아니었다. 그 몸을 온통 감싸주고 있던 것이 있었다. 그 삶을, 그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남김없이 옷처럼 감싸주고 있던 것이 있었다. 바로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성부의 사랑이었다. 세상을 살리려 이 땅에 보내신 독생 성자를 향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의 영광이었다. 그 영광의 빛이 죽음의 언덕 위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달려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벌거벗은 몸을 온통 감싸고 있었다. 믿음의 눈은 본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더없이 찬란히 빛나고 있음을.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싸이고 세마포에 싸였던, 일견 죽음에 둘러싸인 것으로만 보였던 그 참사람의 인생은 실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생명 신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감싸인 삶과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삶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것처럼 살라고 부르신다. 것처럼 죽으라고 부르신다. 것처럼 죽는 길(ars moriendi)이 바로 참으로 사는 길(ars vivendi)이기 때문이다. 그 죽음의 언덕(此岸) 위에 세워진 그 나무 십자가,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이기 때문이다. **만남**

포근한 나의 성령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
고난인 줄 알았더니 가장 좋은 걸 위해
시련인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걸 위해
숨기고 덮어 두셔 언젠가 갖게 하셔
힘들다 도리질 치면 애야! 참아라
아프다 고통하면 애야! 힘내라
네게는 내가 주는 만나만 있단다
가장 좋은 걸 예비하여 네게 준단다
네게 더 좋은 걸 주려고 내가 있단다
널 위해 네 십자가 내가 졌단다
참고 견디는 십자가 무게만큼 더 좋은 거
눌리고 아픈 십자가 길이만큼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게 바로 네 것이란다 주님
가장 좋은 게 바로 네 상급이란단 주님
나는 가장 좋은 것만 네게 준단다

송태옥 신앙시집 『포근한 나의 성령님』 중에서



故 송태옥 권사의 사랑과 헌신

유난히 무덤고 습했던 8월 어느 날, 수요기도회에서 위임목사님은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긴 시인이자 갈릴리 찬양대원이었던 고 송태옥 권사님을 소개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등단한 후, 평생 많은 시를 창작해 여러 상을 받은 시인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발간된 마지막 시집 『포근한 나의 성령님』은 권사님의 삶과 신앙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68세로 소천하시기 전, 몇 년 동안 권사님이 시에 담아낸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국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남겨진 시와 신앙은 여전히 많은 이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제시하며 큰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남**

정리 인미 기자

고아 양육

네팔 (고연희·장언순 선교사)

2004년부터 네팔에서 버려진 신생아 8명을 돌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고연희·장언순 선교사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큰아들 이삭이는 올해 한동대학교 생명과학과에 합격했으며, 딸 영이는 네팔 탁구 여자 국가대표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청소년으로 자란 8명의 아이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랍 현지인 선교사 양육사업

요르단 (최요셉 선교사)

2018년부터 이라크와 시리아 출신 난민 청소년들을 교육하며, 아랍 선교사로 양육하는 '비전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50여 명의 난민 청소년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도자를 세워가는

방글라데시 (정익모 선교사)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정익모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이 세운 사랑의집, 보라초등학교, 해오름중고등학교, 소망봉제 기술학교에서 교육받는 청소년들이 방글라데시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락과 40년 소리선교회

소리선교회는 1985년 가을, 미스바선교회로 시작해 올해로 40년을 맞이했습니다. 소리선교회는 선교부 소속 소단체로, 고아 양육과 평신도 선교사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활동 중인 평신도 선

현지 교회 예배 지원

인도 (서땅끝 선교사)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 가장 덕분에 인도 현지 교회의 예배가 풍성해졌습니다. 주중에는 방과 후 교실에서 기타, 컴퓨터, 카혼, 건반 등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도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차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능기부 선교

타지키스탄 (조은산 선교사)

타지키스탄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방식 제작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노후한 학교의 책상, 의자, 칠판, 수납장 등을 직접 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선교사역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슬렘 국가에서 사역

파키스탄 (하순종 선교사)

2017년과 2020년에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파키스탄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탄의 위협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박해 속에서 헌신하는

카자흐스탄 (오변장 선교사)

카자흐스탄에서 강한 박해 속에서도 비밀 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소리선교회와 기도편지를 주고받으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스라엘 (이승희 선교사)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입국 비자를 중단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메시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인 학생들과 매일 저녁 예배

라오스 (박관수 선교사)

센터에서 교육받고 있는 라오스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지인 선교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초대 선교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튀르키예 (유주손 선교사)

튀르키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와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힘을 내어 성령의 불이 더 많은 현지 가정에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정교회의 제재를 이겨나가는

러시아 (윤기석 선교사)

러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 서진이가 현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남**

영락실전회

"신학생들 도우며 다음세대 세웁니다"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실업인·전문인 모임

우리의 삶이 곧 영적 전쟁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어 단어 'Live'는 '악'을 의미하는 'Evil'을 거꾸로 쓴 형태인데, 이는 우리가 삶에서 악을 이기고 승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락실전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모인 실업인과 전문인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모임의 참된 대표가 되어 주신 성령 하나님 아래, 각기 다른 사역에 따라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 나눔, 기도, 일터 사역, 장학, 자치 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락실전회의 핵심 가치는 격려와 나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경영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믿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학생들을 돕는 장학사업을 통해 다음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One萬 One萬 프로젝트'를 통해 소액의 기부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고, 'Re300프로젝트'를 통해 회복과 격려의 사역을 실천할 300인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300인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장신대 김운용 총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을 방문, 장학금을 전달한 영락실전회 회원들





제1회 장학생 장신대 정주언

주님의 길 걷는 원동력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 후보생에게 학업과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고 현실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사역과 학교를 쉬어야 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배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제게 다가왔

습니다. 바로 학교로부터 영락교회 실전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실전장학회의 회원분들과 성도님들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섬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열매 맺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는 저로 하여금 힘차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락교회 실전장학회와 성도님들의 섬김과 기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회 장학생 아신대 홍사론

마음에 새겨준 그 사랑

박찬 감사로 떠오르는 많은 말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작고 부족하게 여겨 사랑하지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끝이 없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제 삶을 그분의 꿈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장학금을 처음 받았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안에 자리 잡은 생각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락실전회의 장학금을 통해 저는 그동안 머리로만 이해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직접 마음 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영락교회와 영락실전회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보냄 받은 영락이여! 올라가라! 2024 선교대회 마쳐

2024 선교대회가 '보냄 받은 자여! 올라가라!'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1일(금)부터 18일(금)까지 열렸다. 11일(금) 저녁 베다니 홀에서 문화선교축제(관련 기사 12면)로 문을 연 이번 선교대회는 12일(토) <외국인 유학생 사역자 만남의 날> 행사, 13일(주일)에는 선교주일 예배와 학원선교대회, 16일(수)부터 18일(금) 저녁에는 선교부흥회로 이어지며 절정을 이루었다. 17일(목) 오

후에는 선교특강이 펼쳐졌으며, 선교대회 주간 직후였던 23일(수)과 25일(금)에는 베다니광장과 봉사관 앞 교회 마당에서 선교바자회가 열려 선교대회의 열기를 이어갔다. 2024 선교대회는 선교의 열정을 다시 점화하며 선교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이자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더욱 풍성해진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 선교주일과 학원선교대회



2024 선교대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10월 13일(주일)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주일로 지키며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되새겼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가장 가까운, 그러나 가장 먼'(요한계시록 3:14~22) 제하의 설교를 통해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역을 주도했던 서구 교회들의 현실을 개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때 영적 부흥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선교주일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베다니광장에는 영락, 대광, 보성학원의 기독교학교 교육사역을 알리는 홍보부스가 마련되어 학원선교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해외선교 사역중인 협동선교사들의 기도편지를 전시하여

선교지 현황과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성도들과 공유했다.

한편 이날 오후 찬양예배는 학원선교대회로 드렸다. 영락교회가 운영 중인 3개 학교법인 8개 학교 - 영락(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대광초·중·고), 보성(보성여중·고) - 소속 기독교 교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원선교대회에서는 구약학자이자 크리스천 저술가로 낮익은 송실대 교목실장 김회권 목사가 '한없이 무겁고 영광스러운 선생의 길'(요한복음 13:13~15) 제하의 말씀으로 기독교학교 교사들을 축복했으며, 대광초 교목 표경림 목사의 간증과 학원선교 보고영상을 통해 기독교학교 교육현장의 현재와 비전을 공유했다.

선교의 비전으로 다시 불붙다... 선교부흥회



2024 선교대회의 하이 라이트라 할 수 있는 선교부흥회는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매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열렸다. 한국 교계의 원로인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

로)가 강사로 나선 이번 선교부흥회는 말씀 집회를 통해 영락의 온 성도 선교적 사명을 고취하는 자리이자 국내외 해외선교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간구한 기도의 자리였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있었던 산상기도회에 이어 영락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한 말씀잔치의 현장이었다.

한경직, 김준곤 목사의 뒤를 이어 옥한흠, 하용조, 이동원 목사

등과 함께 한국 교회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홍정길 목사는 3일 간의 집회 설교를 통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석한 성도들에게 묵직한 영적 울림을 전해주었다. 16일 '인생의 본분'(전도서 12:13), 17일 '통일한국'(사무엘하 5:1~5), 18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요한복음 9:1~3)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홍정길 목사는 국내외 해외, 북한선교 사역을 아우르는 선교사역의 비전을 성도의 본분과 연결하며 말씀을 이어갔다. 성도의 진정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경외의 구체적 징표는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거듭 강조한 홍 목사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맺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현장 집회에 참여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성도들은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를 다시금 다짐했다.

선교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선교특강

10월 17일(목) 오후에는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선교적 아이디어를 찾고 선교사역의 방향을 논의하는 선교특강이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있었다. 해외선교와 문화선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선교 특강에는 해외선교 섹션 남철우 목사(LA미주기독교방송 대표), 문화선교 섹션 조두형 목사(선교부 전담)가 강사로 나섰다. 조두형 목사는 특강에서 "문화선교는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마중물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역"임을 언급하며, "초대교회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도 보고 만져지는 교회,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응답하는 선교를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해외선교 분과토의에서는 이스라엘에 파송 중인 김정혁 선교사가 '전쟁에서의 선교'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속에서 선교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들려주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 제시… 외국인 유학생 사역자 만남의 날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외국인 선교 공동체 사역자들을 위한 <제1회 외국인 유학생 사역자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월 12일(토)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렸다.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리더가 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역자를 초청하여 효과적인 복음전파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역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이날 행사는 1부 영락 한글자랑대회와 2부 사역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150여 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역사례 발표에서



는 교계와 학계,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학생 사역 방향을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유학생 전도사역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욱 풍성해진 만남과 나눔의 자리… 선교바자회



매년 선교대회 기간 중 성도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던 선교바자회가 올해는 선교대회 주간 직후인 10월 23일(수)과 25일(금) 양일간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렸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선교부흥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열린 이번 바자회는 '영락 만(남) 나(눔) 바자회'라는 타이틀 아래 영락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베다니광장과 교회 마당에 설치된 교구별 부스에는 기증 받은 다양한 의류와 가방, 잡화와 생활용품 등을 비치했고, 3·4여전도회가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마련되어 성도들의 즐거운 참여를 유도했다. 올해는 교구별로 1~4여전도회가 연합한 가운데 바자회를 준비함으로써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군선교 사역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다 함께 모이는 날! 2남선교회 총동원전도

남선교회



제2남선교회(회장 박일수 안수집사)는 지난 10월 22일(화) 저녁 7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다 함께 모이는 날! 총동원전도' 행사를 개최했다. 금년도 신입회원 22명을 포함 17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간증과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7교구(서대문·은평)와 8교구(동대문·중랑) 연합지회의 섬김으로 시작된 1부 순서에서는 김운성 목사가 '그 맛을 아십니까(시편 34:8)라는 주제로 특강을

겸한 간증을 전해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의 울림을 던져주었다. 이어진 특별공연에서는 메조소프라노 김미경 집사(베들레헴 찬양대 솔리스트)의 은혜로운 성가와 가곡 독창을 시작으로 고전무용팀 '예수 향기'의 워십, 네팔어예배부 '리바이브(Revive)'팀의 가스펠 찬양이 이어지며 연합과 친교의 열기를 더했다. 불교에서 개종한 회원의 진솔한 회심 간증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영락작곡가회 제16회 창작성가발표회... <창작성가 제16집> 발간

음악부

우리 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천 작곡가들이 주축이 된 영락작곡가회(회장 김진수 권사)의 제16회 창작성가발표회가 지난 10월 19일(토) 오후 6시 선교관에서 열렸다. 이날 성가발표회에서는 10곡의 순수 창작 성가작품이 발표됐으며, 지휘 장세완 장로(호산나찬양대 지휘), 피아노 임수현, 리틀호산나의 합창으로 진행됐다. 중견과 신예 작곡가의 참여가 어우러진 가운데 열린 이번 성가발표회를 통해 발표된 곡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백승완 곡) '선한 목자'(안승희 곡)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김자현 곡)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박혜원 곡) '눈을 들어 주를 보라'(장태승 곡) '영락이여, 올라가라'(홍권옥 곡)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김진수 곡) 등이다. 홍권옥 은퇴권사(영락작곡가회 전 회장)가 작곡한 '영락이여, 올라가라'는



금년도 영락교회 표어의 바탕인 사사기 말씀을 토대로 작곡한 곡으로서, 성도들의 은혜를 더했다. 영락작곡가회는 발표된 창작성가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불리기를 기대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청년들… 대학·청년 연합기도회

대학부/청년부



영적 부흥을 꿈꾸는 영락의 젊은 세대들이 찬양과 기도로 베다니홀을 가득 메웠다. 대학부·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지난 10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3일간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25일과 26일은 저녁기도회로, 27일은 대학부·청

년부 주일 연합예배로 드린 이번 기도회는 예전 주일에 연합예배로만 드리던 행사를 올해부터 3일간의 기도회로 확대하여 젊은이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년 성도들도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인 첫날 장신대 신대원생과 학부생들로 구성된 '장신 한마음기도회'팀이 열정적인 찬양으로 연합기도회의 시작을 알렸고, '솔리데오 남성장로찬양단'이 특별찬양으로 신앙의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꿈과 사람들'(창세기 37:18~20) 제하의 설교를 통해 "영락 청년들이 하나님 뜻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청년의 때"라고 전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어 26일에는 방덕종 목사(대학부), 27일에는 오병훈 목사(청년부)가 말씀을 전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영락교회 신앙포탈 App(앱) 오픈합니다 11/17(주일) 정식 오픈 예정

주요 서비스

1.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
신앙정보, 교육/봉사, 말씀/기도노트 등
2. 설교/찬양 서비스
말씀산책, 오이코스, 매일성경, 찬양대 등
3. 교회 소식 알림 서비스
교구 소식, 교회 일정, 알림 메시지 등

이용 방법

1. QR 코드 검색
2. 앱스토어(구글, 애플) : '영락교회 신앙포탈' 검색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

* '영락교회 신앙포탈'의 상세한 서비스 내용과 활용방법은 다음호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종교개혁 정신 계승, 10.27 한국 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편향된 인권과 동성애를 과도하게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입법 시도 등으로 신앙과 신념에 근거한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막는 역차별에 맞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간구하며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 교회의 회개와 연합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 결혼 합법화 저지를 촉구하는 '10.27 한국 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었던 지난 10월 27일 오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세종대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분산 개최됐다. 여의도에서는 광화문 현장이 생중계됐다.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의 성도가 참여한 이번 연합예배는 회개와 결단을 통해 더 새롭고 사랑받는 교회로 도약하겠다는 한국 교회의 다짐이 선포된 현장이었다. 참석자들은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사회

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곳곳에 서서 차분히 기도예임을 모았다. "다수의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가정파괴·도덕 붕괴"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참석자들은 함성보다는 침묵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일런스 피케팅(silence picketing)' 시간을 가졌다. 과격한 표현 대신 조용한 행동으로 한국 교회의 뜻을 우리 사회에 전했다.

연합예배 주최 측은 이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000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을 발표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적 타락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세대가 위협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이 생명과 자유의 나라, 창조와 기적의 나라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선언했다.

고요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24 가을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이 지난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주최로 영락수련원에



서 열렸다. 예장 통합을 비롯한 여러 교단 목회자 사모들과 해외 선교사 사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영성수련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우리가 단장할 것'라는 제목의 여는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옷이 아닌 하나님이 보기에 값진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며 참석자들을 권면했다. 파송예배에서는 이철신 원로목사가 '사랑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무제한, 무조건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교역자 동정

서울노회 제207회 정기노회, 본 교회 교역자 10명 목사 안수

지난 10월 24일(목) 서울시 종로구 예능교회(조건희 목사 시무)에서 열린 서울노회 제207회 정기노회(노회장 이승철 장로)에서 본 교회 소속 교역자 1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날 목사 임직식은 증경노회장 조건희 목사 집례로 임직자 소개에 이어 서약, 안수기도, 선포 후 안수증과 임직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서상현 장로가 회계, 김성현 장로가 군선교부장으로 선출됐다. 목사 안수를 받은 본 교회 교역자들은 다음과 같다.



곽영진



김모세



박명일



김하현



정창대



최원석



김하영



한영훈



박화목



최성은

영락사회복지재단,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펼쳐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 장로)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 사회 진입과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2일(수)에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인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 100번째 지역 복지관이기도 한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

비스와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10월 22일(화)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올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개원 감사예배가 열렸다(사진). 이날 개원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실버케어의 기초'라는 설교 말씀을 전했다며, 인근에 위치한 수색교회 민철

홍 위임목사와 당회원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센터에 자원 중인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는 지역과 기관, 교회(영락교회, 수색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령 사회 속 노인복지사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광준 은퇴장로 별세

박광준 은퇴장로가 지난 10월 4일(금) 향년 86세로 별세했다.

1938년 황해도 은율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평생을 기독교실업인으로

활동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90년 12월 집사 안수, 1995년 12월 제27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후 2008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겼으며 대학부장, 사회부장, 예산위원장, 시온찬양대장, 영락학원 이

사,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맡아 기독교학 발전에 공헌했다.

고인의 장례예배는 10월 7일(월)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 집례 가운데 교회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는 '다시 한 번 확인할 일'(요한계시록 21:1~7)이란 설교를 통해 천국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한진유 은퇴장로가 조사를 통해 생전의 고인을 회고했다. 장례예배를 마친 후, 장자인 영락동산에서 박성은 목사 집례로 드려진 하관예식을 마지막으로 영면에 들어갔다. 유족은 부인 최은경 은퇴권사와 1남 3녀를 두었다.





색채를 넘어 '빛'에 대한 갈구

Untitled

1968,
마크 로스코(Mark Rothko)

마크 로스코(1903~1970)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미국 화가로,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색을 사용한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거대한 캔버스에 여러 겹으로 쌓인 색은 기쁨과 슬픔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담아냈으며,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는 보는 이에게 은은한 감동을 남깁니다.

로스코의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색채' 그 자체를 넘어 '빛'을 표현하려는 그의 노력입니다. 그는 색을 통해 빛을 구현하려 했고, 그 결과 그의 작품을 바라보면 단순한 색 이상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의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 내면이 고요해지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안에서 미묘한 감정의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4년 11월호 통권 608호

발행 2024. 11.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독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윤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영락시어터 11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자이언트 (Giant, 1956) 12 201분

3일, 10일

감독: 조지 스티븐스 출연: 엘리자베스 테일러, 록 허드슨, 제임스 딘

자동차로 며칠을 돌아야 할 정도로 넓은 농장의 소유주인 빅 베네딕트. 그는 종마 구매를 위해 찾은 버지니아주에서 린튼의 딸인 레슬리를 만난다.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을 얻어 결혼한 후 빅의 고향인 텍사스로 함께 간다. 목장 생활을 익히려는 레슬리에게 빅의 조수인 제트 링크가 접근해 친절하게 농장을 안내한다. 레슬리가 들어온 이후 차츰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던 것에 불쾌해하던 빅의 누이가 사나운 말을 타고 나갔다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누이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제트에게 얼마간의 땅을 남겨준다. 이에 제트는 불모의 땅 대신 현금을 주겠다는 빅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땅에 작게나마 자기 소유의 목장을 건설한다. 세월이 흘러 제트의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그는 막대한 재벌로 성장한다.



바베트의 만찬 (Babette's Feast, 1987) ALL 102분

17일

감독: 가브리엘 악셀 출연: 스테판 오드랑, 보딜 카이어, 버짓 페더스피엘, 자를 쿨레, 장 필립

덴마크의 바닷가 작은 마을, 그곳에는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 마티나와 필리파가 있다. 젊은 날의 사랑과 추억은 모두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세월은 흐른다. 어느 날 필리파의 연인이었던 파팽의 편지를 품에 안은 바베트라는 여자가 찾아온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아가던 바베트에게 엄청난 복권이 당첨되자 그녀는 이 소박한 마을에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는데...

<관련기사 3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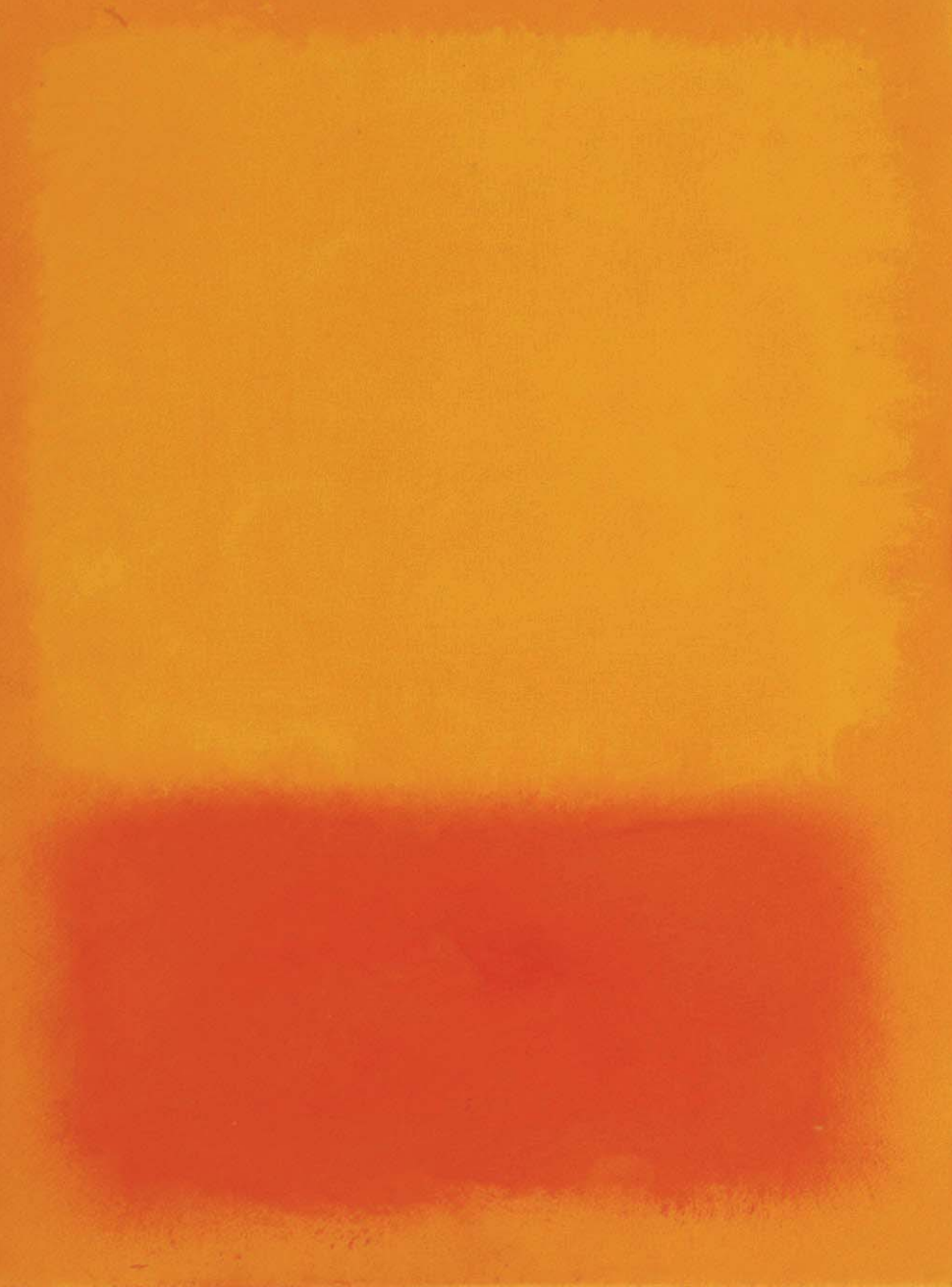


워룸 (War Room, 2015) 12 120분

24일

감독: 알렉스 칸드릭 출연: 프리실라 C. 사이어, 카렌 애버크롬비, T.C. 스탠링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 토니, 사랑스러운 딸 대니엘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엘리자베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그녀는 새로운 고객 클라라 부인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적에게 맞서는 법과 함께 '기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특별한 조언을 받게 되는데... 용서와 치유, 사랑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힘!



무제 | 1968, 마크 로스코(Mark Rothko)

▶ 작품 내용은 56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